

# 이목구비(耳目口鼻)



박 기 현 아주대의료원장

오늘도 이비인후과 외래에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포대기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력검사’를 시행해 온지도 올해로 9년째를 맞는다.

귀(耳)를 보는 것을 평생의 업(業)으로 삼으며 나름대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코자 했던 것이, 바로 ‘난청(難聽)’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옛부터 사람을 평가할 때 ‘이목구비(耳目口鼻)가 반듯한 사람’이라는 말을 쓴다. 눈, 입, 코 보다 ‘귀’가 맨 앞에 나온 이유는 뭘까. 헬렌 켈러 여사는 그의 선생인 안네 솔리번, 전화 발명가인 알렉산더 그라함 벨과의 만남에서 ‘보지 못하면 주위의 사물로부터 격리되지만, 듣지 못하면 사람들로 부터 격리 된다’고 했다. ‘시각장애자’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은 있지만, ‘청각장애자’가 박사학위를 받거나 높은 지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거의 없다. 그 만큼 청각장애자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시대를 맞아 개인의 불행이자 사회의 불행인 청각장애자가 단 한사람이라도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동안 아주대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10,444명을 대상으로 난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20명이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됐다. 이는 전체의 0.19%로, 미국국립보건원(NIH)의 보고와 일치한다. 국가가 모든 신생아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신과형성증·갈락토즈혈증(10만명당 2명), 페닐케토산뇨증(10만명당 3명), 갑상선기능저하증(10만명당 28명)에 비해, 신생아 난청은 10만명 당 150명 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신생아 난청’ 검사가 의무화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난청’이 발견되는 평균 연령이 약 2.5세인데, 정상아가 출생 후 36개월까지 배우는 단어가 500~1,000개이고, 출생 2년 이후부터 배울 수 있는 단어는 100개 미만으로 결국, 난청 유아들은 농아 등 장애인이나 저지능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생 후 청각개선수술이나 보청기 사용, 수술적 요법(인공와우 이식술) 등으로 조기치료하면 3년 동안 배울 수 있는 단어가 320~700개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

과거의 ‘청각장애=불치병’이란 공식은 깨졌다. 여기에는 현대 과학, 의학기술을 집대성한 ‘이비인후과 수술의 꽃’으로 불리는 ‘인공와우 이식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200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2천만원이 넘는 고가 수술에서 400만원 미만으로 비용이 줄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지난 2년 전부터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 청각학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를 신생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공포되어 올 하반기부터 각 권역별로 부분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대되어 다시는 듣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고대해 본다. 🌈

